

교회소식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2012년 교회표어: 그 한사람, 그 예배자 (요한복음 4:24)

◎ 대심방: 2012년 대심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주 심방일정:

월(20일): 베트남 - 고석승 성도

화(21일): 루마니아 - 경덕현, 정근업

박병민 집사

태국 - 원미경, 이옥화 집사

통가 - 방명아 집사

목(23일): 이성희, 최광암 집사

금(24일): 이집트 - 이상재 집사

토(25일): 루마니아 - 박희영 집사

주일(26일): 베트남 - 김동수 성도

◎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 협조: 장애우들이 만든 쿠키 시식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월례회: 3남 선교회, 2여 선교회 월례회가 아동부실, 유아실에서 각각 있습니다.

◎ 홈페이지: 갈보리교회 홈페이지가 새로 단장을 위해서 임시로 기존 홈페이지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새로운 홈페이지가 만들어질 동안 Facebook, YouTube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이나 문의는 admin@calvary.org.nz로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갈보리 교회 홈페이지 주소: www.calvary.org.nz

Facebook (주보, 새소식, 사진): www.facebook.com/calvarykoreanchurch

Youtube(설교, 찬양대 동영상): www.youtube.com/calvaryorgnz

갈보리 교회 Twitter 주소: www.twitter.com/calvarychurch1

8월 새벽 기도회 본문

3일: 누가복음 9:18-27 신앙고백과 십자가를 향한 순종 10일: 누가복음 11:1-13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17일: 누가복음 12:35-48 깨어있는 신실한 종은 복됩니다 24일: 누가복음 14:25-35 누가 참된 제자입니까?

31일: 누가복음 17:22-37 데려감과 버려둠으로 구분되는 그날

갈보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사사역)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사역)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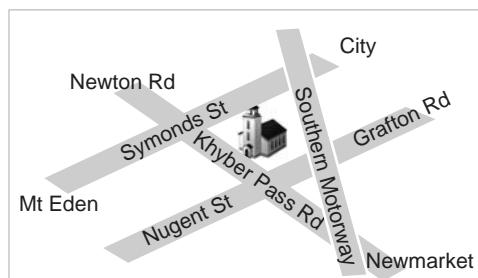


밀알장애인 봉사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주일2부예배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종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오는길



2012년 8월 19일

14권 34호

교회창립 1999/07/14

www.calvary.org.nz



2012 그 날 사람 그 예배자 (요4:24)

주님 곁에 가까이 살아야지 - 박제용 장로

같은 것을 가진 새는 같이 모인다는 말은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먹이를 먹을 때는 서로 먹으려고 치열하다. 내가 시간을 보내는 낚시터에는 서너 종류의 갈매기가 어울려 살아간다. 덩치가 큰 갈매기도 두서너 쌍 있고 조금 작은 도둑 갈매기도 진을 치고 있다. 낚시를 던지면 재빨리 물속으로 다이빙해서 먹이를 찾는 일명 까마꾸찌라는 종류의 갈매기는 주둥이가 매우 발달되어 있고 약삭빠르고 날렵하다.

어느 날인가 낚시에 걸려 놓아준 적도 있다. 작은 물고기를 살려주려고 물에 던지면 재빨리 고기보다 먼저 쏜살같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놈이 통째로 삼키는 것을 보았다. 한데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일명 도둑 갈매기의 이야기다. 그중 한 마리가 어찌다가 작은 낚시에 달린 먹이를 먹은 모양이다. 가는 낚싯줄 약 8cm 정도를 대롱대롱 입에 물고 다닌다. 측은한 생각에 그놈에게 먹이를 주곤 했다. 그놈도 나를 알아보고 내 곁에서 맴돈다. 그런데 같은 종류의 서열이 높은 힘센 놈이 쫓아오면 늘 도망친다. 아마도 서열이 그놈보다 한 수 아래인 것 같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덩치가 큰 놈이 큰소리로 텃세하고 같은 종류의 센 놈이 잠시도 놓아주지 않고 낚싯줄을 달고 다니는 약한 놈을 쫓아낸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먹이를 내 곁에 가까이 던져주면 다른 놈들은 내 곁에 가까이 오지 못하는데 약한 놈은 내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까지 가까이 와서 먹이를 먹는다. 나머지 놈들은 내가 무서운지 소리만 친다.

약한 놈에게는 내가 하나님같이 방패가 되는 모양이다. 순간 시편 73:28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라는 말씀이 생각났다.

나는 정말 부족하고 심히 모자라서 주님 없이는 분초도 못살아가고, 아버지의 품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베드로처럼 시험에 빠질까 두렵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라고 시편 22:13에 말씀하셨다. 아무리 많이 주어도 갈매기나 동물처럼 감사를 모르는 미물이 되지 말고 나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께 마음껏 감사하며 당당하게 살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시편 16:8). 주님은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보리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 - 369-5077 Ph: 09-475-6312 PO Box 8298 Symonds Street Auckland 1150

주일 1부 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하박국 3:17-18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 찬송	19장
※ 성시교독	69. 이사야 40장 (2)
※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80장
대표기도	박병민 집사
성경봉독	출애굽기 14:10-14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신앙인의 불신앙
찬송	191장
현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살아 계신 주(1,3절)
※ 축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은 들어오실 때 현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2부예배 (15:00)

인도: 심창진 목사
찬양 / 심창진 목사
기도 / 박수현 집사
성경봉독 / 뉴 13:1-5
설교 / 회개하지 않으면 / 심창진 목사
찬송 / 오직 주만이
현금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축도 / 심창진 목사

수요예배 (19:30)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 수요찬양단
기도 / 심경순 집사
성경 / 삿 12:1-2
설교 / 에브라임 사람들 / 이태한 목사
합심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찬송 / 405장
주기도 / 다함께

건축헌금 지난주: \$ 10,010.00
총계: \$ 623,613.19

◎ 8월 교회일정

공동체 주관 수요예배:
8월 29일 (수)

◎ 8월 예배봉사자

예배안내 :
김광자/심경순
새신자 안내:
심경순/김광자
주차안내:
양봉욱/민광호
주방봉사
한상순/김윤숙/장태옥/
원미경/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기도: 박일영 장로
다음 주일 1부: 박일영 장로
다음 주일 2부: 박소망 형제
8월 29일 수요기도: 원미경 집사
8월 29일 애찬기도: 박제용 장로
9월 2일 1부: 김영길 장로
9월 2일 2부: 김정민 집사

금주의 기도제목

1. 국내

알코올과 마약 중독으로 삶과 건강을 위협받는 청소년들을 복음으로 선도하며 약물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도록. 이민자의 자녀들이 학교생활에서 소외 혹은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또, 그런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학교와 학생들이 되도록. 유학 온 학생들이 부모의 간섭이 없어도 학교생활을 잘하고 학업에 충실했도록.

2. 교회

계속되는 대심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며, 인도하는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크고 작은 현실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신앙을 앞세워 해결하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모든 성도들이 서로 더 많은 사랑과 배려가 있도록, 예배를 우선적으로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성전 건축을 위해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각 선교회의 회장단과 공동체장과 인도자들이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잘 감당하도록.

갈보리 짧은글

윗필드의 일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 윗필드가 설교를 할 때 한 사람이 모임 중간에서 열심히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윗필드는 설교를 멈추고 단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졸고 있는 그 사람에게 충고하였습니다.

“당신이 졸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말이 윗필드 자신의 말이라면 주무셔도 좋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어떻게 졸 수 있습니까?” 심하게 꾸중하고 난 다음에 그는 후반부 설교를 다시 이어갔습니다. 졸음에서 깨어난 그 사람이 일생일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상의 몸과 최상의 마음 그리고 최상의 정신을 예배에 바칠 수 있도록 구별해 놓아야 합니다. 예배시간에 졸지 않고 깨어 있기만 하다고 충분히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헤어진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 앞 골목에서 불잡고 오늘 무슨 설교를 들었느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세 가지로 말할 것입니다. “은혜로웠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지루했습니다.”

그 이상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어느 본문을 설교했는지 기억하고 말씀 선포를 통해서 순간순간 변득이는 진리가 자신의 삶에 도전하였던 바에 대하여 감격하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김남준 -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중에서